7. 내 자식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자식을 낳아 가르칠 때에는 약간의 지식이 생길 때부터 착한 일로 인도해야 한다. 만약 어릴 때 가르치지 않고서 자라게 되면, 커서 나쁜 것을 익히고 放心(방심)*하게 되어 가르치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 가르치는 차례는 마땅히 『소학』*의 순서를 따라야 한다.

대체로 볼 때 한 가정 안에서 禮法(예법)을 잘 지키고 책이나 편지글이나 붓이나 먹 같은 물건 외에 잡다한 오락기구나 노는 것이 없으면, 子弟들 또한 쓸데없는 일에 마음을 쏟는 잘못이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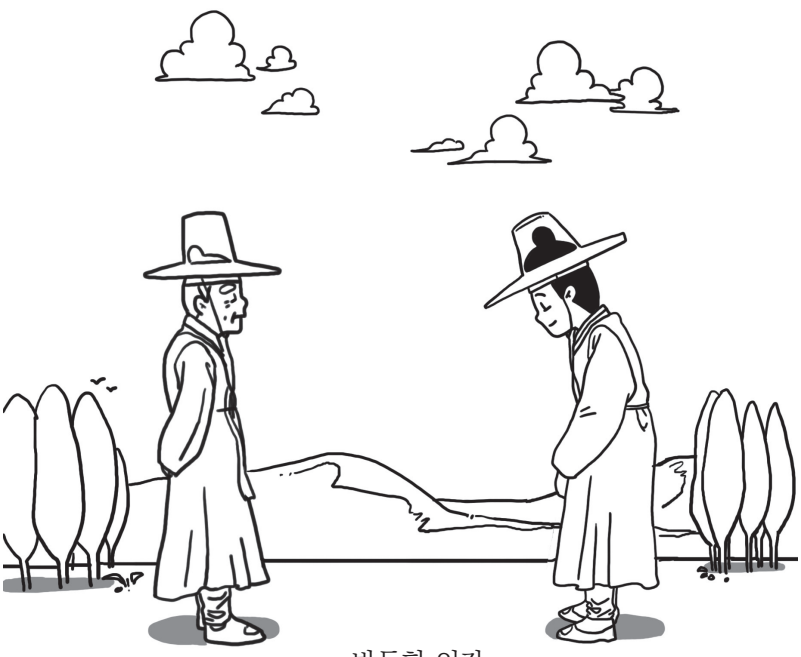
兄弟의 자식은 내 자식과 같으니 내 자식과 똑같이 사랑하고 가르치며,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격몽요결』「거가장」)

*放心(방심) : 마음을 놓아버림 *小學(소학) : 옛날 어린이들이 학문을 시작하는 기초 교과서.

예쁘게 색을 칠해 보세요.

어릴때의 가정 교육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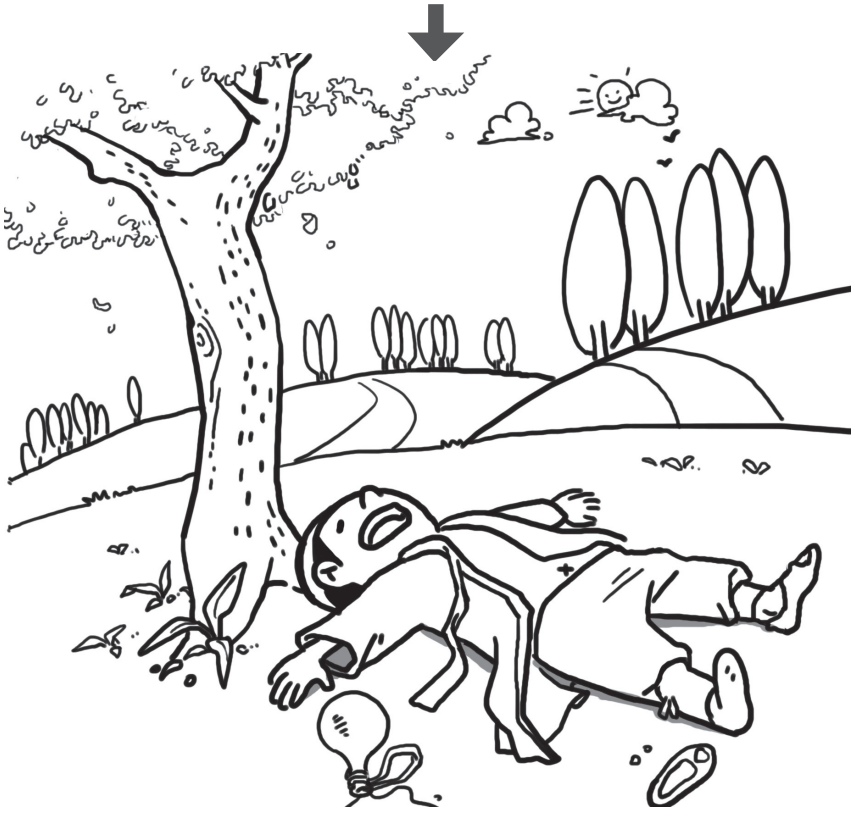
예절을 지키며 잘 배움



반듯한 인간

예쁘게 색을 칠해 보세요.

놀기만 하고 배우지 못함



무례한 인간

본문 해설

자식 교육도 당장 여러분에게 필요한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의 父母님들이 여러분을 얼마나 잘 교육시키는지 판단해 볼 수 있는 기준을 찾을 수는 있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교육하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만 생각하기 쉬워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당연히 교육은 가정에서 출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父母는 자기 子女를 책임지고 가르쳐야 해요.

물론 그 가르치는 내용이 영어나 수학 같은 교과목이 아니라 人間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예절과 생활에 관계되는 일이에요. 우리말에 '세살 버릇 여든 간다'라는 말이 있지요? 어렸을 때 집안에서 제대로 교육받지 않으면, 학교에 와서 배워도 그 잘못된 버릇을 고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무섭지 않나요?

그럼 옛 父母들은 무엇을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물론 예부터 관습으로 전해오는 것도 있었겠지만, 율곡 선생은 『소학』을 소개하고 있네요. 소학에는 앞에 잠시 소개했던 성리학을 완성한 남송의 朱子(주자)라는 분이 제자에게 시켜 편찬한 책이에요. 거기에는 어린이들이 지켜야할 기본적인 여러 가지 예절이 들어 있지요. 물론 율곡 선생만이 아니라 조선시대 많은 선비들이 『소학』을 배웠고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소학』에 나오는 옛 이야기 몇 가지를 소개했어요.

그런데 가정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꼭 해당 아이의 父母만 가르친 것은 아니었나 봐요. 당시는 대가족제도(할아버지 밑으로 여러 子孫들이 같이 모여 사는 것)였으니까, 자기 父母가 아니라도 큰아버지나 작은 아버지가 가르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兄弟의 자식도 내 자식처럼 똑같이 사랑하고 차별하지 말라고 했어요.

재미있는 점은 집안에 오락하는 기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도 컴퓨터 오락이나 오락기에 빠지는 것을 父母들이 싫어하지요. 옛날에 오락기는 없었으나 오락으로 노는 윷·장기 등의 놀잇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볼 문제

1. 내가 올바른 사람이 되는 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나 장소는 누구이며 어디입니까? 해당되는 것에 모두 ○표 해 보세요.

학교	학원	부모님	할아버지와 할머니	교회	성당	절	향교	기타

2. "만약 어릴 때 가르치지 않고서 자라게 되면, 커서 나쁜 것을 익히고 방심하게 되어 가르치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라는 말을 잘 나타낸 속담을 골라보시오. ( )

① 낮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을 쥐가 듣는다.

② 세 살 버릇 여든 살까지 간다.

③ 아니 때 굴뚝에 연기 날까?

④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3. 내가 잘못했을 때 야단을 치거나 바르게 인도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있는 대로 골라 써 보세요. ( )

① 아버지 ② 어머니 ③ 학교 선생님 ④ 할아버지와 할머니 ⑤ 기타

4.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야단치거나 꾸중하는 사람을 원망하거나 싫어합니다. 그런데 속담에는 '좋은 약은 입에 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으로 교훈으로 삼을 경우 만약 내게 야단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 )

① 이후로는 어색해서 그 사람을 미리 피해버린다.

② 고맙게 생각하고 잘 따른다.

③ 잔소리를 할 것 같아 그 사람 앞에서는 착한 척한다.

④ 원망스럽고 분하지만 일단은 참는다.

한자·한문 익히기

1. 다음의 한자를 익혀 봅시다.

뜻	가벼울	무거울	두터울	엷을	착할	배울
한자	輕	重	厚	薄	善	學
음	경	중	후	박	선	학

2. 한자어의 음과 뜻을 알아봅시다. (　) 속에 알맞은 음을 써 보세요.

가. 輕重(　　) : 가볍고 무거움

나. 厚薄(　　) : 두텁고 얇음

3. 다음 서로 반대되는 뜻을 가진 한자를 줄로 이으시오.

(1) 輕 ●　　● 學

(2) 薄 ●　　● 厚

(3) 敎 ●　　● 重

4. 다음 한자어를 읽어 보세요.

學生(　　)　親善(　　)

5. 다음 고사성어의 음에 해당하는 말을 □안에 써 넣으시오.

善男善女(□남□녀) : 착한 남자와 착한 여자 곧 착한 사람들의 뜻이었으나 보통사람의 뜻으로 쓰임

6. 다음 □ 속에 한자의 음을 써 넣고, 큰 소리로 여러 번 읽어 보시오.

兄弟之子(□□지□)는 猶我子也(유□□야)니라 : 형제의 자식은 나의 자식과 같다.

관련된 이야기

소광의 자식 교육

『소학』에 나오는 옛 이야기에요.

옛날 중국 전한 때의 소광이라는 사람은 태자를 가르치는 스승이 되었는데, 얼마 뒤 벼슬을 그만두고 시골로 돌아가게 해 달라고 황제께 여쭈었어요. 황제가 그것을 허락하면서 黃金 20근을 내리고, 태자도 50근을 내려주었지요.

소광은 고향인 시골로 돌아와 술과 飮食을 마련하여 하루가 멀다시피 친척과 친구들과 손님들을 초청하여 즐겼어요. 그리고는 집안의 살림을 맡은 사람에게 아직 金이 몇 근 남았냐고 자주 물었지요.

일 년이 지나자 소광의 자식은 아버지와 가까운 노인을 찾아가 부탁했어요. 財物을 막 쓰지 마시고 집이나 농토(농사짓는 땅)를 사게 해 달라고 자식들을 대신해서 말해 달라는 거였어요.

한가한 틈을 타서 그 노인이 그 말을 전하자 소광이 말했어요.

"내 어찌 늙고 망령이 들어서 자식을 생각하지 않겠는가? 내 집에는 예부터 물려 받은 농토와 농가(농사지으면서 사는 집)가 있어서, 자식들이 부지런히 농사를 짓는다면 남들처럼 먹고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네. 이제 그것을 더 사주어 풍족하게 해준다면, 그것은 자식들에게 게으름을 가르쳐 줄 뿐이네. 현명하면서 財物이 많으면 높은 꿈(이상)이 손상을 입고, 어리석으면서 財物이 많으면 잘못만 늘어나게 되네. 더구나 부유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시기하여 미워하는 것인데, 내 어찌 그 잘못을 늘어나게 하고 남의 원망을 사게 만들겠는가?"

소광은 정말로 자식을 위하는 책임 있는 사람 같아요. 옛말에 "자식에게 黃金 한 바구니를 물려주는 것보다, 책 한 권을 가르쳐주는 것이 더 낫다."는 말이 있는데, 참으로 지혜로운 자식 교육 방법이라 생각돼요.

요즘은 자식이 해 달라는 대로 해주고, 유산을 많이 남겨 주는 것을 자식 사랑으로만 알고 있는 父母들이 있는데, 그것이 혹 자식을 망치게 하는 일이 아닌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관련 인성 가치	책임